##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는 광주·전남에서부터

노경수

“

수도권의 집중은 이미 심각한 상황을 넘어 절망적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9.1%이 살고 있고, 2020년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2.3%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게다가 공공기관 84.4%, 100대 기업 중 82%, 1000대 기업 중 71%, 벤처기업의 77%, 기업부설연구소 72.1% 등이 좁디좁은 땅에 몰려 있다.

”

며칠 전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 주최로 도시계획 관련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이 강연회에 강사로 초청된 서울 소재 대학 교수와 뒤풀이를 가졌는데, 강사로 나선 서울 교수와 학생들 간의 대화는 최근 이슈가 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옮겨졌다.

이 서울 교수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면 중앙정부나 국회는 과거와 같이 호남이나 영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예산이나 인사에서도 지역 안배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마찰이 있을 때는 언제나 수도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존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대폭 수정해 수도권도 다른 광역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7개 권역에 2008년부터 5년간 5조5000억원을 투자해 선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선 4기 당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 기업 입지 허용 확대, 공장총량 및 공업용지 제도 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시책이 추진됐다. 그 결과 수도권에 190개 기업이 4조8262억원을 투자해 모두 7만8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전체 12조원에 달하는 생산 및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민선 5기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목표로 사례별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은 이미 심각한 상황을 넘어 절망적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9.1%이 살고 있고, 2020년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2.3%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게다가 공공기관 84.4%, 100대 기업 중 82%, 1000대 기업 중 71%, 벤처기업의 77%, 기업부설연구소 72.1% 등이 좁디좁은 땅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만 살자’를 외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제1주요시책’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경쟁국가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수도권을 규제해야만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계 경쟁도시들과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지역 침체와 국가 경쟁력 하락,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환경·교통 폐해 등 그 부작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게다가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국회의원 44명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정안의 핵심은 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에 있는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4년제 대학 신설규제, 기업입지 제한, 대형 건물과 공공 청사에 부과해 오던 과밀부담금 제도와 공장총량제 등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법 시도에 생존마저 위태로운 2500만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치밀하고 준비된 수도권의 움직임에 비해 우리 지역의 대응은 졸속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생각이다. 지방의회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반대의사 표명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언론에서는 기존 논리를 반복하고 학계에서는 그저 우두커니 지켜만 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언론, 정치인, 지식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논리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또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인권·민주·평화의 도시인 광주가 지자체,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각계 각 분야에서 지방간 연계망을 구축, 수도권의 규제완화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본거지가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창조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김 총리 후보 발탁 ‘균형·화합’ 계기돼야

장성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됐다. 지난 8·8 개각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국회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김 후보가 국회 청문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할 경우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첫 총리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지명한 것은 원만한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우선 새 총리 후보가 또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을 받아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후보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정부 수립 이후 첫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호남 출신을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발목을 잡았던 ‘영남 독식 및 호남 소외 인사’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지역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김 후보의 내정을 일단 환영한다. 김 후보가 지역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조계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왔고 감사원장으로서도 소임을 무난히 수행해오는 등 신망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리 후보 인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청문회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가 총리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얼굴용 총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 총리 후보의 발탁을 계기로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는 고질적인 인사풍토를 획기적으로 쇄신해 공직사회의 ‘공정한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의 여건도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 광주·전남 지방선거 ‘불·탈법’ 전국 최고라니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의 선거사범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인 가운데 65명이 입건되고, 아직까지 고소·고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과열·혼탁 양상에 따라 지금도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은 75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선거사범(3618명)의 20.9%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불법 선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4.1%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6.9%, 불법 유인물 부착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이 이처럼 불·탈법 선거로 얼룩진 것은 민주당의 ‘진흙탕’ 경선으로 인해 각 후보 진영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루머를 무차별 퍼트린 데 원인이 크다. 또한 민주당의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줄세우기’ 공천에 반발해 집단 움직임을 보인 무소속 돌풍도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 광주 서구청 등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관권선거’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유권자들 또한 불법선거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금품과 향응의 상대가 바로 유권자들이 아닌가. 원하지 않는 데야 먼저 줄리는 만무하다. ‘돈선거’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낳고, 사법 처리와 함께 재선거라는 악순환을 부른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불명예와 함께 수억원에 달하는 재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불·탈법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도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 선거사범 처리가 늦어지면 지역 내의 갈등과 분쟁 등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화합과 안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 종교칼럼

송정용

# 고향의 소리

한동안 뻐꾸기시계가 유행하던 시절, 우리 집에는 이 시계가 없다는 걸 알고 어느 교인이 뻐꾸기시계를 사다가 벽에 다 걸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만 되면 문을 열고 나온 뻐꾸기가 뻐꾹 뻐꾹 소리를 내는데 영락없이 고향에서 너무나 자주 듣던 소리였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 고향에서의 정취에 포근히 안기는 것 같아서 좋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추석을 맞고 보니 더욱 고향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지금 60대 이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골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산에 올라 진달래 꽃 따서 입에 물고 뛰어다니며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는 고향의 소리가 있습니다. 뻐꾸기의 소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도심에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귓전에는 자동차의 경적소리나 도시 소음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예민해지고 구겨져 있습니다.

소음공해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인조 뻐꾸기의 소리라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의 마음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의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사람들. 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고향의 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향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 줍니다. 우리 정서의 고향의 소리를 들으면서 악한 일을 계획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 착한 뼈를 자라게 해준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노천명의 시 한 수가 생각납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 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 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아얗게 피는 곳.”

시인의 노래처럼 고향은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포함하는 곳입니다.

6·25 동란을 만나서 고향을 떠난 어떤 사람이 부른 망향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도 그리워하는 고향이지만 10년이면 고향산천도 변하고 넉넉히 잡아서 100년이 지나면 나와는 상관도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뭇 별이 조용한 저 건너,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 희락이 충만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인류의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평화를 얻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엄마의 자장가가 아기의 신경을 잠재우듯이 성도들이 부른 고향의 노래는 찬바람 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용기를 주며 희망을 세워 줍니다. 그리고 거친 영혼을 쓰다듬어 줍니다.

〈광주 산성교회 담임목사〉

## 기고

박천호

# 언제나 정겨운 고향 가는 길

자기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향한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은 널리 알려진 성어이다. 또 오랑캐 땅에서 남으로 온 말은 북풍이 불면 언제나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울고,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 나무 가지에 항상 집을 짓는다.(호마시북풍, 월조소남지 / 胡馬嘶北風, 越鳥巢南枝)라는 고시가 있다. 금수들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지각(知覺)을 지닌 우리 인간에게 고향이라는 존재는 실로 엄청나게 큰 본능적 정서인 것이다.

‘포도주엔 언제나 그 산지의 독특한 향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고향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떠나지 않는 영원한 ‘노스탈지어’의 손수건이 있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나온 곳으로 내가 나고 자란 고향산천! 뒷동산 앞 개울가엔 옛 추억의 어렴풋한 여운이 서려있고, 모성애 같은 너그러움이 담겨있기에 그 어떠한 이름난 명승지보다도 더 아름답고 포근한 불후(不朽)의 애향곡(愛鄕曲)인 것이다. 그 곡조 속에 잔잔히 노래 부르고 춤추며 노니는 우리영혼의 아늑한 실체적 쉼터인 것이다.

추석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민족에겐 설날과 추석이라는 2대 전통 고유 명절이 있다.

잠시, 우리와 닮은 지구촌 추석문화를 살펴보면, 같은 음력문화권인 중국은 ‘중추지엔’이라 하여 고향에 돌아가 월병(月餠)을 만들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을 기린다. 일본은 오봉(御盆)이라는 우리와 비견되는 풍습이 있고, 미국은 추수감사절, 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투생’이라는 날이 있고, 소련은 ‘성 드미트리’라는 날이 있다고 한다.

각 분야의 산업화로 사회구조가 핵가족시대로 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교육 수단 등 여러 인연의 소치로 고향을 떠나 생활근거지를 도회지로 바뀌게 되었다.

객지에서 지내다가 추석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고향 길을 나선다. 한복을 차려입고 저마다의 형편을 보듬은 채로 귀성 행렬 의 틈에 끼어 한바탕 현대판 신 풍속도를 만든 지가 이미 오래다. 민족의 대이동인 것이다.

고향 가는 길. 마음은 벌써 동네 어귀에 가 닿았는데, 이놈의 차는 왜 이리 늦는지.

도회생활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의 넉넉한 품안에 안기어, 한 해 동안 힘들게 거둬들인 햇곡식과 과일로 음식을 장만하여 선영을 찾아 성묘를 하고, 정겨운 이웃과 더불어 서로의 가슴마다에 둥근 보름달을 한 아름 껴안으로 가는 길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고향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이 가을은 더 풍성하게 여물어 갈 것이다. 교통이 혼잡스러울 텐데 모두들 안전수칙 잘 지키며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가는 고향길이 되기를 바란다.

〈서예가〉

## 無等鼓

# 비밀노트

기록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만큼이나 오래됐다. 기원전 3200년경 이집트에서 인류 최초의 상형문자가 등장했지만 기록은 이보다 훨씬전인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시작됐다.

인류 역사의 발전을 기록의 축적에서 찾기도 한다. 그림·기호에 이어 문자가 발명되고 이를 이용해 기록한 내용이 쌓이면서 역사가 됐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지식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직도 선사시대의 미몽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

기록을 달리 말하면 메모다. 위인중에는 메모광들이 많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연구실에 대해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실험장비는 만년필과 종이, 그리고 다 쓴 종이를 버릴 휴지통이면 충분합니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생각이 나면 메모했고 메모지를 묶으니 책이 됐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권영수사장은 ‘적자생존’을 ‘글로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은 “생각은 쉽게 달아나기 때문에 붙들어두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며 “생각을 붙들어두는 방법으로 메모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메모의 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둔필승총(鈍筆勝聰)’이라 할 것이다.“둔한 필기가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는 의미다.

목포 한 룸살롱 마담의 ‘2차 노트’가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 비밀장부에는 술을 마시고 속칭 ‘2차’를 나간 400여명의 고객 연락처가 적혀있다고 한다. 전승현·박연차 게이트에서 최근 스폰서 검사까지 잊을만 하면 비밀장부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

위인들은 메모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버림으로써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새로 채우기 위해서다. 반면 비밀노트 작성자들은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이 아닐까. 버리지 못하는 집착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

# 교통사고 목격자 포상금 보험사가 지급 했으면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 곳에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가 목격자를 찾는 일이니 얼마나 다급하고 억울하면 후사하겠다는 말까지 넣어서 목격자를 찾을까 싶다.

사고 목격자들도 동네 사람이 아닌 이상, 또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니 목격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교통사고 목격자들은 몇 번씩 불려다닐 일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생업을 제쳐두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은 생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그 목격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OO파파라치들에게는 수많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포상금을 줄게 아니라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을 할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나서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 2200-515 |
| 〈대표 FAX | 222-4918〉 | 문화홍보국 | 2200-541 |
| 편집부 | 2200-649 | 〈FAX | 222-8005〉 |
| 문화생활부 | 2200-661 | 〈FAX | 222-0195〉 |
| 여론매체부 | 2200-621 | 광고마케팅국 | 227-9600 |
| 정경부 | 2200-612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체육팀 | 2200-697 | 〈FAX | 227-9500〉 |
| 〈대표 FAX | 222-4918〉 | 〈FAX | 227-9500〉 |
| 사진부 | 2200-693 | 디자인 | 2200-536 |
| 사회부 | 2200-616 | 서울지사 | 02-773-9331 |
| 조사부 | 2200-571 | 기획사업국 | 2200-555 |
| 〈대표 FAX | 222-4267〉 | 〈FAX | 02-773-9335〉 |
| 전산팀 | 2200-68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